ISSUE BRIEFING
2019. 07.17
Vol. 200

2019

ISSUE BRIEFING

연구진
조경욱_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아람_여성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2019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의 삶

CONTENTS

Ⅰ. 인구 …… 02
Ⅱ. 가구 …… 04
Ⅲ. 가족구성과 가정생활 …… 06
Ⅳ. 여성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 …… 09
Ⅴ. 여성 복지·건강·안전 …… 13
Ⅵ. 정책적 시사점 …… 16

■ 통계청에서는 매년 양성평등주간*마다 여성의 모습을 부문별로 조명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작성해 오고 있음
* 양성평등 주간 : 7.1.~7.7.(양성평등기본법 및 시행령)
■ 이 글에서 인용한 통계는 통계청의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참고하여 일부 통계지표를 추가·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jthink 전북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 인구

• 2019년 전북 여성인구는 902,742명으로 전북 인구의 50.1%를 차지
• 2019년 여성인구 중 생산가능연령인구 65.3%, 노령인구 22.9%, 연소인구 11.7%
• 20~34세 청년인구 유출이 큰 가운데 20~24세 청년여성인구 유출은 남성보다 많음

⊙ 총 인구

• 2019년 6월 기준 전북의 총 인구는 1,803,291명, 이 중 여성인구는 902,742명으로 전체인구의 50.1%를 차지함

- 총 인구 : 1,795,819명(2010년)→1,803,291명(2019년)→1,718,458(2030년)→1,654,350(2040년)
- 여성인구 : 908,664(2010년)→ 902,742(2019년)→ 860,405(2030년)→ 829,871(2040년)
- 남성인구 : 887,155(2010년)→ 900,549(2019년)→ 858,053(2030년)→ 824,479(2040년)

⊙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연소인구는 감소 추세, 노령인구는 증가 추세이고 생산가능연령인구는 소폭 증가

- 2019년 현재 전북의 여성인구 중 연소인구(14세 이하)는 11.7%, 생산가능연령 인구(15~64세)는 65.3%, 노령인구(65세 이상)는 22.9%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생산가능연령과 연소연령 인구 비율이 낮음
- 전북은 여성노령인구의 높은 비율로 인해 생산가능연령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5.6%p 낮은 수준

〈표1〉 전라북도 연령별 3계층 인구 추이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연소인구 (14세 이하)	구성비	생산가능인구 (15~65세)	구성비	노령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2010	여성	908,664	141,282	15.5	594,671	65.4	172,711	19.0
	남성	887,155	151,884	17.1	623,522	70.3	111,749	12.6
	계	1,795,819	293,166	16.3	1,218,193	67.8	284,460	15.8
2019	여성	902,742	105,817	11.7	589,860	65.3	207,065	22.9
	남성	900,549	112,487	12.5	640,127	71.1	147,935	16.4
	계	1,803,291	218,304	12.1	1,229,987	68.2	355,000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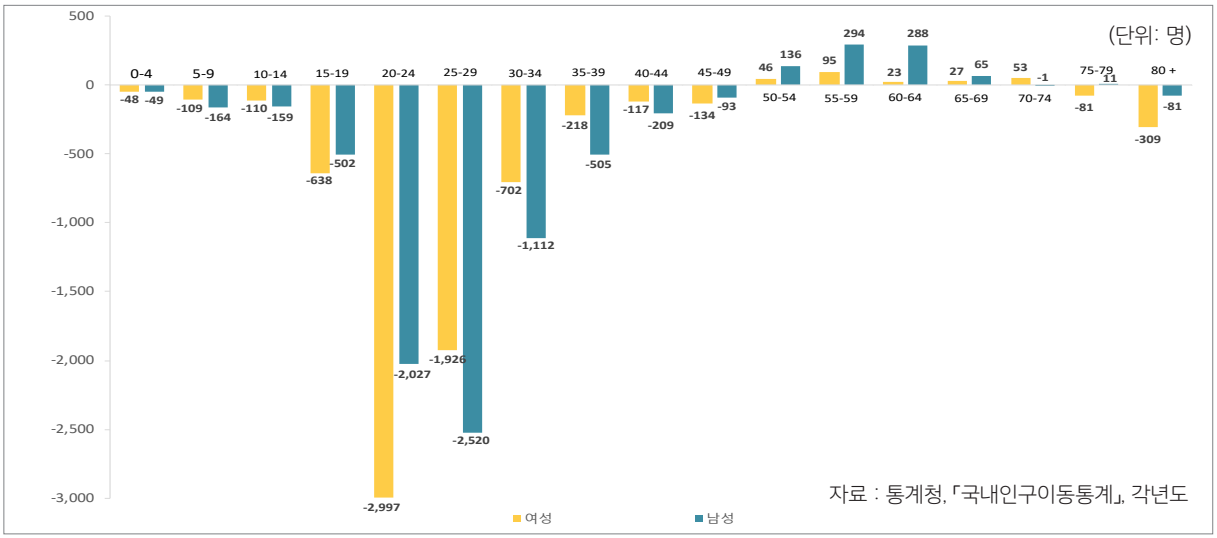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6

◉ 전라북도 순이동자

• 전라북도 시·도간 이동은 전입보다 전출이 높아 순유출 발생, 특히 20~34세 청년인구 유출이 크게 나타남

- 2018년도 타 시도 유출로 총 13,773명이 감소하였으며, 20~34세 인구는 11,284명 순유출 발생

- 20~24세 연령에서는 여성의 인구 유출이 남성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 청년여성층의 인구 유출은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전북의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



〈그림 1〉 전라북도 연령별 순이자동자(2018년)

- 출생아 및 합계출산율은 감소추세, 2018년 전북 출생아 수는 2010년 대비 37.9% 감소
-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전북의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는 큰 폭으로 증가 추세임

◉ 출산율

• 2018년 전국의 총 출생아 수는 326,900명으로 2010년 대비 30.5%p가 감소하였으며 전북은 같은 기간 37.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의 출생아 수 감소비율 폭이 큰 편임

- 2018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977명까지 떨어짐. 전북은 1.040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2010년 1.374명에서 2018년에는 1.040명까지 0.334명이 감소하였고 동 기간 동안 전국은 0.249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은 전북이 더욱 큰 편임

- 2010년 대비 2018년 출생아 수의 증감률은 전북은 37.9%가 감소(전국 30.5%)하여 저출산 현상이 심각

〈표2〉 전라북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및 출생성비

(단위: 명, %)

구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1]	출생성비
전라북도	2010	16,100	1.374	107.9
	2018	10,000	1.040	103.8[2]
전국	2010	470,171	1.226	106.9
	2018	326,900	0.977	105.4

주 : 1)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 전라북도의 경우 2018년 출생성비가 나오지 않아 2017년 자료로 대체함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부양비 및 노령화

• 전국적으로 유소년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의 급증 추세로 인해 2040년에는 총 부양비가 30% 대에서 70%대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총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 : 총 부양비(전국 36.6%, 전북 45.2%) / 노령화 지수(전국 68.7%, 전북 95.6%)

- 2018년 : 총 부양비(전국 38.0%, 전북 46.9%) / 노령화 지수(전국 115.4% 전북 156.9%)

Ⅱ. 가구

• 2019년 전북 총 가구의 33.9%는 여성이 가구주이며, 2010년(28.7%)보다 5.2%p 증가
• 1인 가구는 증가 추세, 과반수가 여성 1인 가구이며 70세 이상의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음

◉ 여성 가구주

• 2019년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수는 251,733가구로 전체 가구의 33.9%를 차지

- 2019년 전북 여성의 가구주 비율은 33.9%로 전국 31.2%보다 2.7%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2010년 28.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40년에는 3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전국 여성가구주 비율(%): 26.1(2010년)→ 31.2(2019년)→ 31.6(2020년)→34.8(2030년)→37.1(2040년)

*전북 여성가구주 비율(%): 28.7(2010년)→ 33.9(2019년)→34.3(2020년)→37.5(2030년)→39.6(2040년)

◉ 1인 가구

• 2017년 전북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52.9%로 과반수를 상회

- 2017년 전북의 1인 가구는 227,6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1.2%이고 이중 여성 1인 가구는 120,505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52.9%를 차지함. 전북 여성 1인 가구는 전국 평균 50.3%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은 59.8%로 남성 가구주 40.2% 보다 19.6%p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남성은 증가하여 남녀의 격차는 5.8%p로 나타남

〈표3〉 전라북도 성별 1인 가구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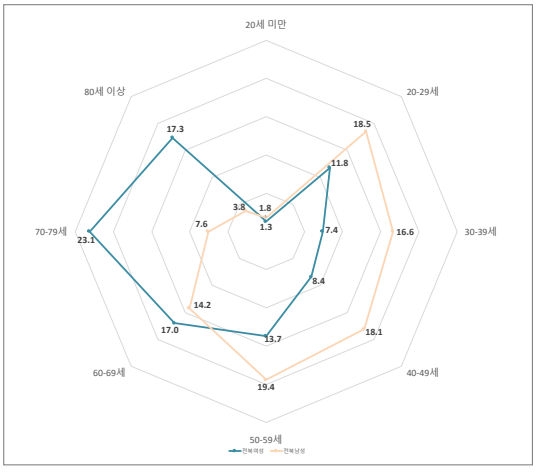
구분		전체가구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		남성 1인 가구	
				명	%	명	%
전라북도	2010	659,946	175,026	104,604	59.8	70,422	40.2
	2015	717,311	213,750	113,793	53.2	99,957	46.8
	2017	728,871	227,600	120,505	52.9	107,095	47.1
전국	2010	17,339,422	4,142,165	2,217,824	53.5	1,924,341	46.5
	2015	19,111,030	5,203,440	2,610,477	50.2	2,592,963	49.8
	2017	19,673,875	5,618,677	2,826,828	50.3	2,791,849	49.7

자료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여성의 연령대별 1인 가구의 비중은 70세 이상이 23.1%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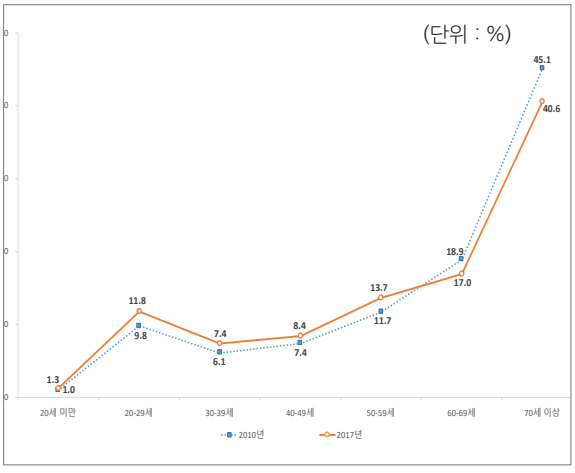
- 전북 여성의 연령대별 1인 가구의 비중은 70~79세가 23.1%로 가장 높아 남성 7.6%보다 15.5%p 높고 전국 평균(17.1%)보다 6.0%p나 높음

- 60세 이상에서 여성 1인 가구 비중은 57.4%를 차지하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의 1인 가구는 25.6%로 여성 1인가구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남성 1인 가구는 20~50대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됨



자료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그림 2〉 전라북도 1인 가구의 연령별 비중 (2017년)



자료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그림 3〉 전라북도 여성 1인 가구의 연령별 비중 (2010년vs2017년)

- 국제결혼 건수는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 전북 여성다문화가구원 수와 결혼이민여성 수는 증가
- 귀농귀촌인은 꾸준히 증가 추세, 여성귀농인 비율은 35.7% 여성귀촌인 비율은 49.1% 차지

⊙ 다문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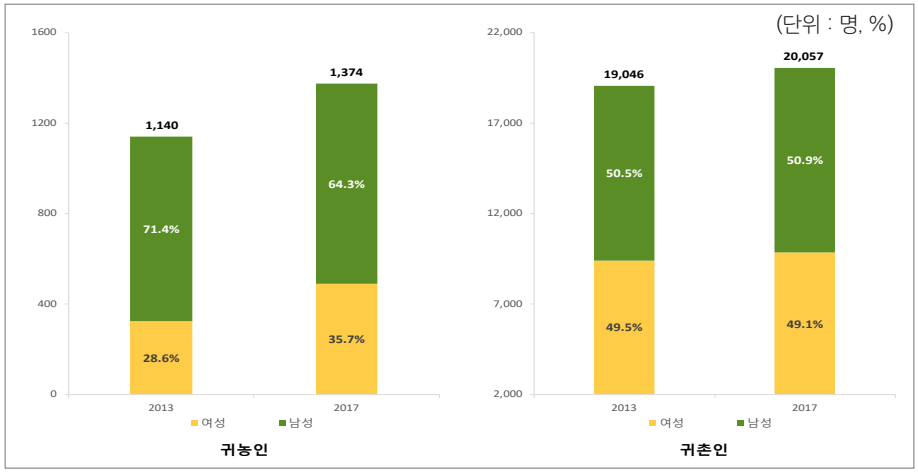
•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전북은 전년대비 조금 증가

- 2017년 다문화가구를 구성하는 총 가구원 수는 39,804명이고 이 중 여성가구원의 수는 20,614명(51.8%)으로 과반수를 차지함

- 여성 다문화가구원 중 내국인 출생자 수는 전년대비 69명(0.6%) 줄어든 9,926명, 귀화한 여성 수는 전년대비 274명(1.2%) 늘어난 4,762명, 결혼 이민자 여성 수는 5,376명으로 전년대비 13명 늘어남

⊙ 귀농 및 귀촌

• 2017년 귀농인 수는 총 1,374명이며 이 중 여성은 35.7%(490명)로 2013년 대비 50.3% 증가하였으며 귀촌인은 총 20,057명 중 여성은 49.1%(9,839명)로 2013년 대비 4.4% 증가



〈그림 4〉 전라북도 성별 귀농인 및 귀촌인

Ⅲ. 가족구성과 가정생활

• 전국 혼인율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북의 조혼인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음
• 초혼연령 상승세로 만혼화 경향이 나타나 저출산의 요인으로 작용
• 이혼건수는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전북은 소폭 상승, 남성 이혼율이 높은 편

⊙ 혼인과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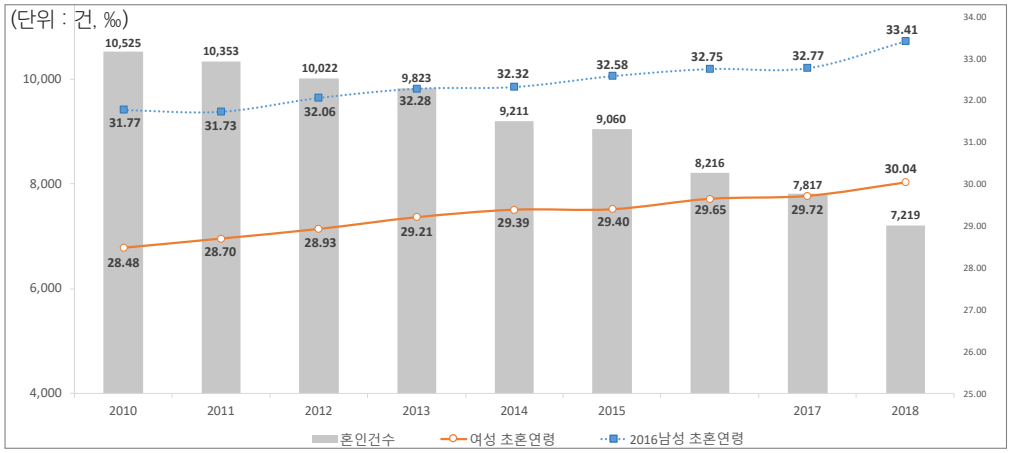
• 전국적으로 혼인율이 감소하여 역대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의 혼인율 감소폭은 전국평균보다 크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전국 평균 혼인건수는 257,622건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6%p 감소하였고, 전북은 7,219건으로 연평균 3.9%p 감소하여 전북의 혼인율 감소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평균 초혼연령 상승, 전국에서 가장 낮은 조혼인율

- 2018년 기준 평균 초혼연령은 전국 여성 30.40세, 남성 33.15세이고, 전북 여성 30.04세, 남성 33.41세로 전북의 초혼연령은 여성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남성은 높음

- 전라북도의 조혼인율은 2018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낮은 3.9건으로 인구대비 혼인건수도 가장 낮은 수준(전년대비 0.3명 감소)으로 나타나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주 : 2018년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5〉 전라북도 혼인건수 및 성별 초혼연령

• 2018년 기준 전북의 이혼 건수는 총 3,934건임

- 전북의 이혼 건수는 2010년 3,910건에서 2015년 3,755건까지 감소하였다가 2018년 다시 증가함.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의 이혼 건수는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북은 예외적으로 2018년 약간 증가

- 2018년 전북의 여성 이혼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남성 이혼율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음

* 성별 이혼건수 : 2010년(전국 116,858건, 전북 3,910건) / 2018년(전국 108,684건, 전북 3,934건)

* 성별 이혼율 : 2018년(전국 여성 4.8% 남성 4.9% / 전북 여성 4.5% 남성 5.0%)

• 가사분담의 성별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음
• 남성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성별격차는 여전히 큼
• 전북의 가족분야 성 평등 지수 중 가사노동시간과 육아휴직자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가사분담

• 가사분담에 있어 '부인이 전담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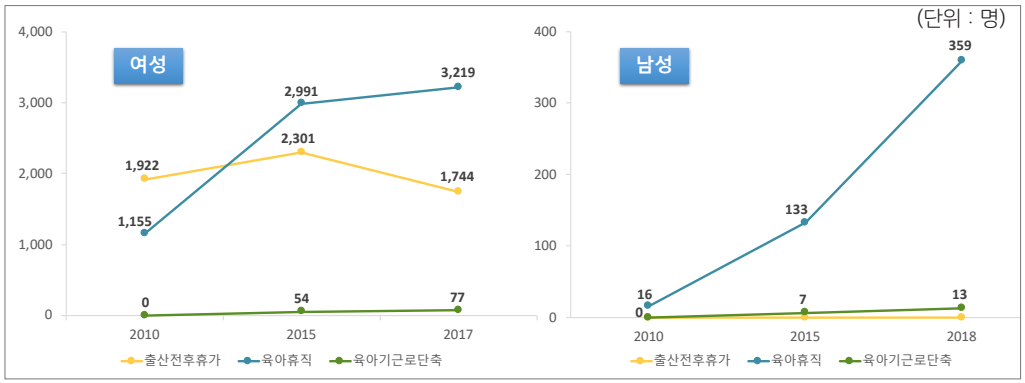
-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부인 전담'이나 '주로 부인이 전담한다'는 비중이 2010년에는 88.9%이었으나 2018년에는 76.9%로 나타남. 한편 '공평하게 분담'은 2010년 9.5%에서 2018년 20.4%로 증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사분담에 대한 성별격차가 좁혀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낮은 편

◉ 가족돌봄: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사용률은 감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저출산의 영향으로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사용률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성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은 전국과 전북 모두 2015년 대비 2018년 약 1.5배 정도 증가

- 남성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특히 육아휴직은 2010년 대비 2018년 괄목할 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남성 육아휴직 사용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각년도

〈그림 6〉 전라북도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수급자 수

◉ 가족분야 성평등 지수

• 2017년 기준 전북의 가족분야 성평등 수준은 58.1로 전국 평균보다 0.9p 낮고 순위는 11위

- 전북의 가족분야 세부지표 가운데 가족관계 만족도와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등은 전국 평균 및 가족분야 1위 지역 점수를 선회하고 있으나 가사노동시간과 육아휴직자 성비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하위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부동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육아휴직자 성비는 11.6으로 전국 평균 15.4와 가족분야 1위인 지역의 62.2와도 점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 전라북도 지역별 성 평등지수 가족분야 세부지표

(단위 : 점, %)

구분	2015		2016		2017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가족분야 1위 지역 점수	전국 평균
가사노동시간 성비	24.3	15	24.7	15	25.1	15	29.4	27.6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4.5	10	99.8	3	95.7	4	93.3	93.0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97.8	13	100.0	1	100.0	1	98.5	99.6
육아휴직자 성비	5.2	11	8.9	8	11.6	12	62.2	15.4
평균점수	55.3	16	58.4	4	58.1	11	70.9	58.9

주 : 완전평등수준 = 100.0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Ⅳ. 여성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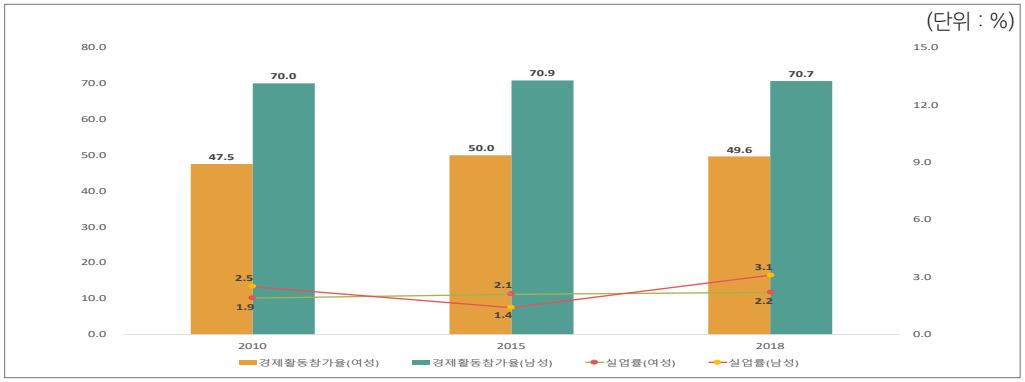
- 2018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49.6%, 남성 70.7%로 성별 참가율 격차는 21.1%p
- 여성취업자 비율이 높은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임
- 상용근로자 여성비율은 남성보다 낮고 임시근로자 비율은 높아 여성고용이 매우 불안정함

⊙ 경제활동참가율

• 전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 추세이나 전국 평균보다 낮고 성별격차는 여전히 큰 편

- 전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47.5%에서 2018년 49.6%로 2.1%p 증가하였으나 전국 여성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52.9% 보다는 낮은 수준임

- 전북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0년 22.5%p에서 2018년 21.1%p로 소폭 감소하고 2018년 전국 평균 성별격차(20.8%p)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7〉 전라북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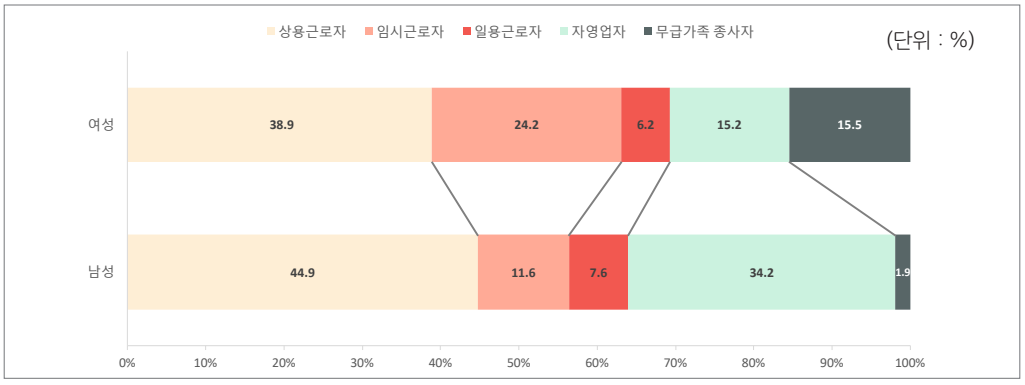
◉ 취업자의 직업분포 및 종사상 지위

• 2018년 기준 전북의 여성 취업자 비율이 높은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7.5%, 서비스 종사자 16.5% 순임

- 성별 취업 분포의 격차가 높은 직업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중 여성 취업자는 2.5%에 불과한 반면 남성 취업자의 18.0%를 구성함.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남성 취업자는 6.2% 여성은 16.5%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전북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38.9%로 남성보다 6.0%p 낮고, 임시근로자 비율은 24.2%로 12.6%p 높으며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은 15.5%로 남성보다 13.6%p 높음

- 전북의 임금 근로자 중 여성 임시근로자 비율은 24.2%로 남성 임시근로자 11.6%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비임금 근로자 중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은 15.2%로 남성 자영업자보다 2배 이상 낮음.
- 한편 무급가족 종사자는 여성 취업자의 15.5%를 구성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데 반해 남성의 경우 1.9%만이 무급가족 종사자로 남녀의 격차가 8배 이상 큰 차이를 보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8〉 전라북도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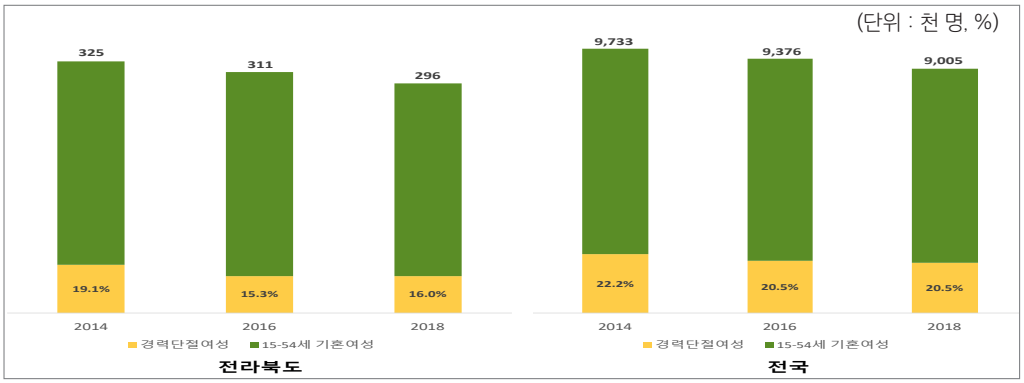
• 전북의 경력단절여성은 47,510명으로 기혼여성(15~54세) 총 인구의 16.0%를 차지
• 전북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670천 원으로 남성 월평균 임금의 60.5% 수준

◉ 경력단절여성 현황

• 경력단절여성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북의 경력단절여성 비율(16.0%)은 전국 평균 경력단절여성 비율(20.5%)보다 낮음

- 2018년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은 47,510명으로 2010년 대비 23.2% 감소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전체의 감소 정도인 14.7%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30대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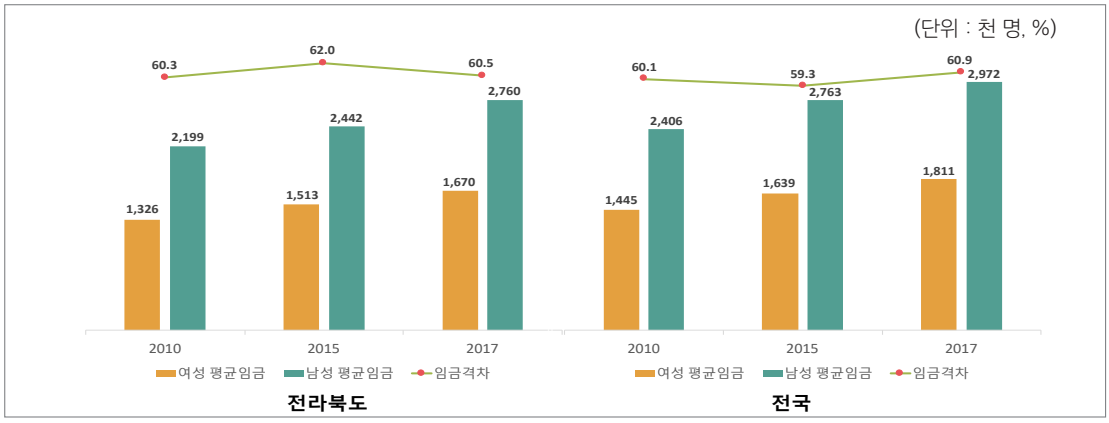
〈그림 9〉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 현황

◉ 임금격차

• 전북 여성 평균임금은 2017년 1,670천원으로 남성 평균임금인 2,760천원의 60.5% 수준임

- 전북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010년 1,326천원에서 2017년 1,670천원으로 연평균 3.7%p씩 증가했으나 전국 여성의 월평균 임금(1,811천원)보다 낮으며 2017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임(전남 1,533천원, 경북 1,598천원, 인천 1,662천원)

- 전라북도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월평균 임금의 60.3%(2010년), 62.0%(2015년)로 전국 평균(60.1%, 59.3%)을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전남 51.8%, 경북 57.1%, 경남 59.0%)으로 나타나 임금 성비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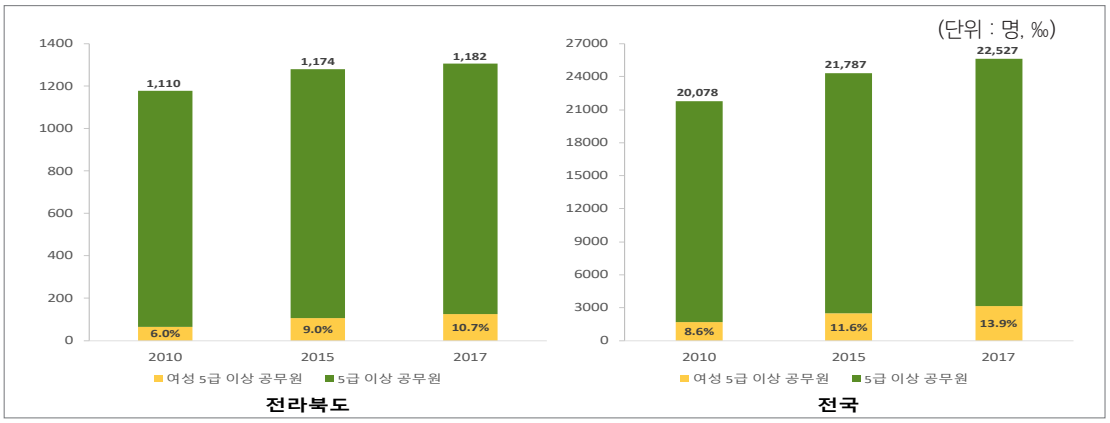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그림 10〉 전라북도 성별 임금격차

•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은 31.0%로 법적 기준 40%에 미달하고 있음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의원 당선율은 광역12.8%, 기초24.4%

⊙ 5급 이상 공무원

- 2017년 기준 전북의 5급 이상 공무원 1,182명 중 여성은 126명으로 10.7%이며 전국 평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인 13.9%보다 낮음
- 전북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0년 6.0%에서 2017년 10.7%로 4.7%p 증가하였으나 전국의 경우 2010년 8.6%에서 2017년 13.9%로 5.3%p 증가하여 전북의 증가 추세가 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7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남



자료 : 여성가족부,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그림 11〉 전라북도 5급 이상 공무원 성별 추이

⊙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성비

•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위원 9,118명 중 여성 위원은 2,831명으로 31.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평균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여성비율인 35.4%보다 낮음

- 전북의 여성 위원 비율은 2014년 23.3%에서 2017년 31.0%로 연평균 2.6%p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 지방선거 여성의원 당선 현황

• 전라북도의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중 여성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당선자 중 여

성의 비율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전라북도 지방선거 광역의원 후보자 중 여성의 비율은 18.3%, 기초의원 후보자 중 여성의 비율은 22.6%였으며 당선자 중 여성의 비율은 광역의원 12.8%, 기초의원 24.4%로 나타남.

Ⅴ. 여성 복지·건강·안전

•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비율이 낮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높아 여성이 빈곤에 더 취약
• 여성의 노후준비 정도는 남성보다 낮은 가운데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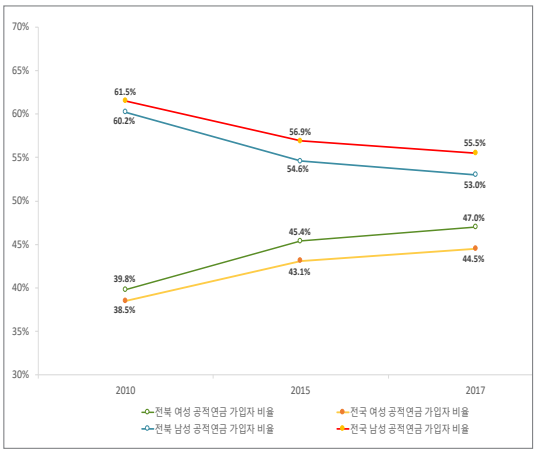
⊙ 공적연금 가입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전북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율은 남성보다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음

- 2017년 기준 전북의 공적연금 가입자는 여성 263,140명, 남성 295,556명임. 2010년 대비 2017년 여성가입자 비율은 39.8%에서 47.0%로 7.2%p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여성비율인 44.5%보다 높음
- 공적연금 가입률은 남녀 모두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자 수의 성별 차이는 여전히 3만3천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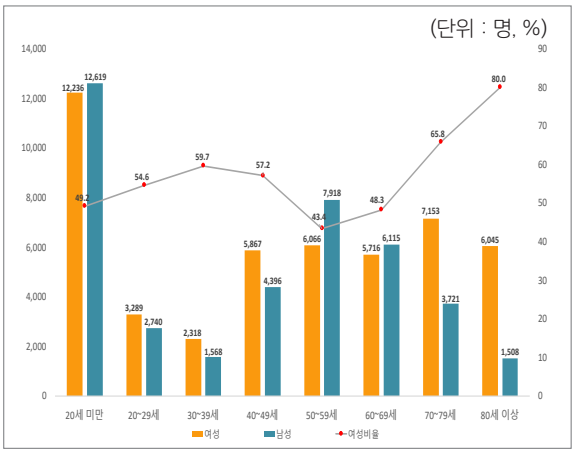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의 절반 이상이 여성(54.5%)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비율 높음

-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여성 48,690명, 남성 40,585명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넘는 54.5%임. 특히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여성비율이 높아 고령여성이 빈곤에 더 취약함



주 : 공적연금가입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자료 : 여성가족부,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그림 12〉 전국, 전라북도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2017

〈그림 13〉 전북 성별·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7년)

◎ 노후대비 방안

•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보다 낮고 대부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아 다차원적 노후준비 정도는 낮은 편임

- 2009년 노후준비를 하는 전북 여성의 비율(52.2%)은 전국 평균(61.2%)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7년 기준 전북 여성의 비율은 58.0%로 2009년 대비 5.8%p 증가하여 전국 평균(59.8%)에 육박함. 그러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전북 여성의 비율은 2017년 58.0%, 남성 71.3%로 남녀의 격차는 13.3%p임

- 노후대비 방안은 남성과 여성 모두 국민연금 의존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과 사적연금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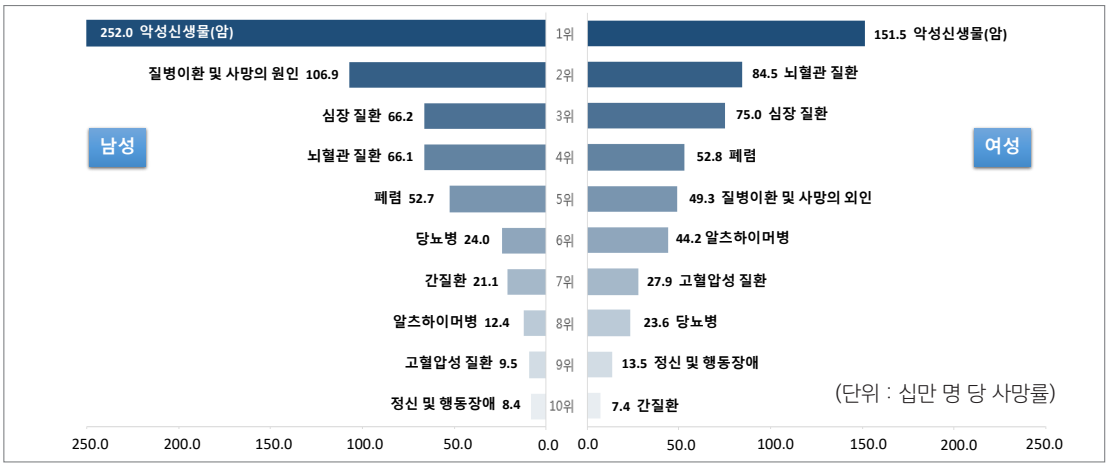
• 대표적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로 남성이 여성보다 1.6배 많고, 알츠하이머는 여성이 남성 3.6배

◎ 대표적 사망원인

•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사망원인은 남녀 모두 악성신생물(암)으로 남성(252.0%)이 여성(151.5%)보다 약 1.6배나 더 많음

- 전북의 대표적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

- 전북여성의 사망은 남성에 비해 암, 심장질환, 간질환,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으나, 알츠하이머병은 여성 44.2%, 남성 12.4%, 고혈압성 질환의 경우에도 여성 27.9%, 남성 9.5%, 정신 및 행동장애 여성 13.5%, 남성 8.4%로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음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7년

〈그림 14〉 전라북도 성별 사망률 순위(2017년)

•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 비율은 86.0%로 남성 14.2%에 비해 매우 높고 꾸준히 증가
• 범죄위험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은 남성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전북은 지속적으로 감소

◎ 여성의 안전

• 2017년 기준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 비율은 86.0%로 2010년 82.4%, 2015년 8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여성의 불안감이 남성보다 큼

- 2018년 사회조사에서 여성이 '안전하다'(매우 안전+비교적 안전)고 응답한 비율은 15.6%(남성19.0%)에 불과한 반면 '불안하다'(매우불안+비교적 불안)는 응답은 51.5%(남성 41.2%)로 범죄위험 정도에 대한 성별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은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음

- 2018년 기준 전북에는 총 25개소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있음.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가 각각 7개소로 가장 많지만 2010년 대비 시설 수가 대폭 감소

〈표 5〉 전라북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단위 : 개)

구분		계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 상담 자활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통합 상담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전라북도	2010	42	17	2	-	18	1	4
	2015	29	9	2	4	10	-	4
	2018	25	7	2	4	7	1	4
전국	2010	517	160	19	-	248	26	64
	2015	577	159	30	92	203	23	70
	2018	610	170	31	96	207	40	66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소, 「성인지통계」,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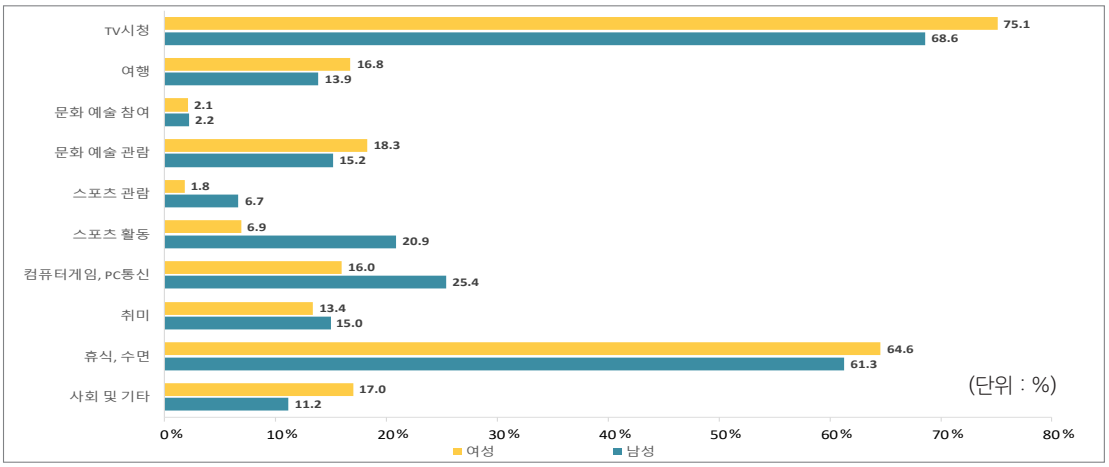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은 남녀 모두 TV시청과 휴식·수면이 많고 다양한 여가활동 적음

◎ 여가 활동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은 남녀 모두 TV시청과 휴식·수면 활동이 대부분으로 다양한 유형의 여가활동 부족

- 전북 여성의 주말·휴일 여가활용 방법은 TV시청(75.1%), 휴식·수면(64.6%), 문화예술 관람(18.3%), 사회 및 기타활동(17.0%)의 순으로 높고 남성은 TV시청(68.6%) 휴식·수면(61.3%), 컴퓨터게임·PC통신(25.4%), 스포츠 활동(20.9%) 순으로 높음

- 여가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가 관련 인프라 취약 등으로 다양한 여가활동 부족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소, 「성인지통계」, 각년도

〈그림 15〉 전라북도 성별 여가활용 방법

Ⅵ. 정책적 시사점

1. 저출산 대응

⊙ 2040세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

- 전북은 일자리와 교육 등으로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대에서는 청년여성의 인구유출이 두드러지고 있음. 청년층의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가임여성 인구감소로 이어져 향후 저출산 심화와 지역 활력 저하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므로 2040세대를 겨냥한 인구정책 대응이 중요함
- 전북의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일자리와 주거지원 등 청년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여 청년층의 인구유출을 최대한 억제

⊙ 성 평등 관점의 출산·양육 환경 조성

- 전북은 혼인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결혼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부정적인데 이는 결혼으로 인하니 여성의 경력 단절,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이나 독박육아 등에 기인함

-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서서 남녀 평등한 노동·양육 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2. 고령사회 대응

⊙ 여성가구주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 2035년에는 전국의 1인 가구는 총 가구의 3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전북의 1인 가구의 성별가구주는 여성이 52.9%로 남성보다 많으며 고령화로 인한 60세 이상의 독거여성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임. 이외에 청년실업 증가, 이혼율 증가, 소득부족으로 인한 결혼지연 등으로 1인 가구는 더욱 급증할 전망

- 여성가구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전북의 여성가구주는 전체 가구의 33.9%를 차지하며 2040년에는 3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여성가구주와 1인 가구는 안전이나 보건 등이 취약하므로 1인 가구와 여성가구주를 위한 생활안정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여성노인치매 예방 등 노인건강관리 정책 강화

- 전북은 타 시도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80세 이상의 고연령층 여성노인은 남성인구의 2배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 됨. 특히 알츠하이머(치매)에 의한 여성 사망률은 44.2%로 남성(12.4%)의 3.6배에 해당하므로 치매예방 등의 건강관리 정책이 고령화 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

- 치매 부양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안심센터 유치 및 확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 장기요양등급 외의 치매환자를 위한 방문형 주·야간보호서비스 기능 확대 필요

3. 평등한 일터 조성

⊙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격차, 경력단절 등 고용환경 개선

- 여성임금근로자 가운데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비율은 30.4%로 남성 19.2%에 비해 높

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성고용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 전북의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0.5%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임. 경력단절 여성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30대의 경력단절 비율이 높아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임금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용기회의 차별 등 중첩된 노동시장 차별에 기인하므로 노동시장 성차별 개선을 통한 여성고용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함. 여성고용의 불안정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여성일자리 확대 등 미래 직업세계에 대비한 여성 경력 개발을 지원하여 성별 고용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양립 제도화·및 내실화

- 육아휴직자 수는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또한 유아기 근로단축과 같은 유연근무는 일·생활 균형에 효과적이며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지만 실제 활용은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이유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낮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직장 내 분위기 때문임.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소득대체율 수준을 보완하고 일·가정양립 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목표로 상담과 컨설팅 추진

4. 여성의 안전

⊙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확대

-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과 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이 확대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북의 관련 시설 개소 수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이 설치됨에 따라 향후 전북도 적극적 대응 필요 (*2019년 현재 대구, 인천, 충북, 전남 등 4개소)

⊙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확대 필요

-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위험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비율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고 범죄위험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여성친화도시는 전국에 8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전북은 단 3곳(익산, 김제, 남원)에 불과함.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확대하여 도시기반 시설과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등에 안전한 공간 조성을 구축하도록 함(*2020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고창군, 순창군 준비 중에 있음)

5. 전북의 성 주류화

⊙ 여성대표성 제고를 통한 전북의 성 주류화 정책기반 강화

-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비, 지방선거 여성의원 당선율 등에 있어 전북은 3개 지표 모두 변화의 폭이 없거나 약해서 낮은 성 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여성의 대표성은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검토하고 지자체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 및 여성의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성인지 통계 생산 정례화 및 체계적 관리

- 남녀의 서로 다른 성별 지위, 경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분석하는 성인지 통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환류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2년 단위로 성인지 통계 수립과 구축을 정례화하고 있음

- 전북은 2013년과 2017년 성 인지 통계를 비정기적으로 생산하였음. 성인지 통계 생산을 2년 단위로 정례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일반도민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ISSN 2508-688X

ISSUE BRIEFING
2019. 07.17 Vol. 200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